

여성·가족 현안 국민여론조사

“2009년을 돌아보고 2010년을 조망하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년 여성·가족 관련 핵심 이슈” 및 “2010년 여성·가족 관련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실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성평등정책 현안 및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성 관련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번 조사는 연말을 맞이하여 첫째 2009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여성이나 가족 관련 주요 이슈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둘째 아울러 다가오는 2010년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주력해야 할 부분과 셋째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족 구성원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은 만9세부터 49세까지 전국에 대표성 있는 성인 표본으로 여성 500명, 남성 500명, 총 1,000명임
- 조사기간은 2009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이며,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음

이슈 #1

2009년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 관련 이슈를 알아본다.

■ 2009년 여성·가족 관련 가장 큰 사건으로 ‘조두순 사건’ 꼽아

☞ ‘조두순 사건’ 모든 순위에서 가장 큰 비율 차지

- 2009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난 여성 및 가족 관련 사건들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음. 조사는 응답자별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는 형태로 실시함.
- 조사 결과, ‘조두순 사건’, ‘신종플루’, ‘루저의 난’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순위, 2순위, 3순위의 결과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음. <표>은 각 순위별로 가장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10개의 내용을 제시한 것임 - 1순위에서는 ‘조두순 사건 (42.5%)’이 가장 큰 비율을

<표1> 2009년 여성·가족 관련 중요한 사건 및 이슈 상위 10위

	1순위		2순위		3순위	
	사건명	빈도(비율)	사건명	빈도(비율)	사건명	빈도(비율)
1	조두순 사건	237 (42.5)	조두순 사건	166 (34.7)	조두순 사건	69 (19.2)
2	신종플루	58 (10.4)	신종플루	56 (11.7)	신종플루	59 (16.4)
3	루저의 난	48 (8.6)	루저의 난	46 (9.6)	루저의 난	35 (9.7)
4	강호순 사건	43 (7.7)	강호순 사건	43 (9.0)	여성 지원병제	28 (7.8)
5	군 가산점	26 (4.7)	군 가산점	26 (5.4)	강호순 사건	22 (6.1)
6	장자연 사건	23 (4.1)	장자연 사건	23 (4.8)	장자연 사건	21 (5.8)
7	여성 지원병제	19 (3.4)	여성 지원병제	18 (3.8)	꿀벌지	14 (3.9)
8	꿀벌지	11 (2.0)	꿀벌지	11 (2.3)	군 가산점	11 (3.1)
9	황산테러	11 (2.0)	황산테러	9 (1.9)	여성가족부 재통합	11 (3.1)
10	지적 장애인 성폭행	7 (1.3)	지적 장애인 성폭행	7 (1.5)	황산테러	10 (2.8)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종플루' (10.4%), '루저의 난' (8.6%), '강호순 사건' (7.7%)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율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2순위 또한 10위까지의 결과는 1순위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표1>에 제시되진 않았지만, 3순위는 1, 2순위 보다도 더 다양한 사건들이 제시되었음. '네이카드 뉴스', '세 자녀 이상 전기세 감면', '트랜스젠더 강간죄 인정' 등의 내용들이 추가되었음

- 모든 순위에서 '조두순 사건'이 2009년 여성·가족 관련 가장 큰 사건으로 선정되었음. 이어서 '신종플루'가 두 번째로, '루저의 난'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또한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10위까지의 결과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국민들에게 이 세 사건이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모든 순위에서 '조두순 사건'이 2009년 여성·가족 관련 가장 큰 사건으로 지목되었음.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이 상당히 컸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아동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 및 향후 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표1>에 제시된 주요 10가지 사건 중 '조두순 사건', '강호순 사건',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 성폭행 문제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음. '장자연 사건' 또한 성상납과 관련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여성의 성과 관련한 문제가 지난 한 해 주요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그 외에도 '강호순 사건', '군 가산점제', '장자연 사건', '여성 자원병제', '꿀벌지', '황산티러', 지적 장애인 성폭력 등이 2009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사건들로 꼽힘.

- 군복무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군 가산점제', 여성의 군복무와 관련된 '여성 자원병제' 등 군복무 관련 문제도 적잖은 이슈가 되었음.

- <표1>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꿀벌지' 외에도 '오코녀', '군심녀', '철벽녀', '루저녀' 등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는 특정 인물을 비하하거나 은어적으로 표현한 단어들이 지난해 주요 이슈가 되었음.

☞ 중복응답 결과, 일반 국민 68.5%,

'조두순 사건' 2009년도 중요한 사건으로 꼽아

• 2009년 중요한 여성·가족 관련 이슈에 대한 응답자의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응답 내용을 순위에 상관 없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 아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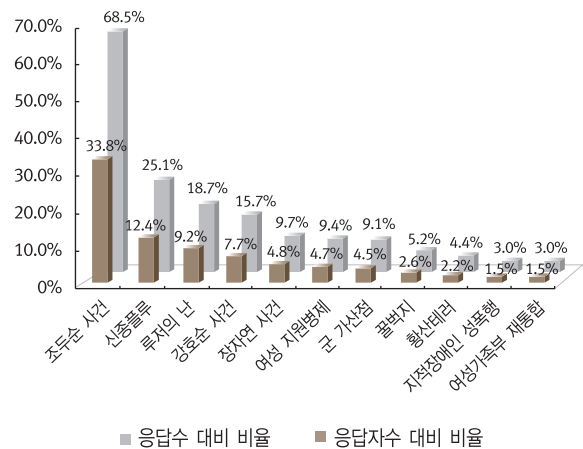
은 분석된 결과 중 상위 10개를 제시한 것임

• 중복응답 분석 결과, 2009년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 이슈는 역시 '조두순 사건'이었으며, 2위는 '신종플루', 3위는 '루저의 난'으로 나타났음.

- '조두순 사건'은 전체 응답의 33.8%를 차지하였으며, 응답자의 68.5%가 이 사건을 2009년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 이슈라고 응답하였음. 이는 2위로 나타난 '신종플루' 보다도 약 3배 정도 많은 비율임.

- 뒤를 이어 '신종플루' (12.4%), '루저의 난' (9.2%), '강호순 사건' (7.7%) 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조두순 사건' 과 비교해 상당한 격차를 보였음.

<그림1> 2009년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 이슈 복수응답 상위 10위



주) 복수응답

☞ 여성들은 '성폭력 문제'와 '신종플루'에, 남성들은 '군대 문제'와 '루저의 난'에 더 민감

• 성별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2009년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 이슈에 대한 남녀 간의 의견 차이를 알아보았음(<표2> 참조).

• 분석 결과, 남성들은 군대 문제와 '루저의 난'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조두순 사건'을 제외하고 남성들은 '루저의 난'을 가장 큰 이슈로 꼽았음. '루저의 난'에 대한 남성들 (12.8%)의 응답률은 여성(5.7%)의 약 2배로 나타남. '루저의 난'은 일정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지 않은 남성을 패배자(loser)라고 단정화한 한 여대생의 발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사회적 비난과 화제가 되었으며, 특히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았음. 남성의 외모에 대한 발언인 만큼 많은 남성들이 이 사건을 2009년 가장 인상적인 여성·가족 이슈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군 가산점' 및 '여성 지원 병제'와 같은 군대 관련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1.8%). 여성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그 비율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6.6%).

- 한편,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성폭력 문제'와 '신종플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종플루'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응답률(15.3%)은 남성(9.5%)에 비해 약 1.5배 더 높음 이는 상당수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아동 및 가족들의 감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여성들은 '조두순 사건', '강호순 사건', '지적 장애인 성폭력' 등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응답률이 남성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장지연 사건'에 대해서도 남성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표3〉 성별에 따른 2009년 여성·가족 관련 중요한 사건 상위 10위 단위: 명(%)

남성			여성		
1	조두순 사건	241(34.6)	1	조두순 사건	231(33.0)
2	루저의 난	89(12.8)	2	신종플루	107(15.3)
3	신종플루	66(9.5)	3	강호순 사건	62(8.9)
4	강호순 사건	46(6.6)	4	루저의 난	40(5.7)
5	군 가산점	43(6.2)	5	장지연 사건	39(5.6)
6	여성 지원병제	39(5.6)	6	여성 지원병제	26(3.7)
7	장지연 사건	28(4.0)	7	황산테러	22(3.1)
8	꿀벌지	20(2.9)	8	군 가산점	20(2.9)
9	여성가족부 재통합	13(1.9)	9	꿀벌지	16(2.3)
10	황산테러	8(1.1)	10	지적 장애인 성폭행	16(2.3)

주) 복수응답, 응답수 기준

이슈 #2

2010년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노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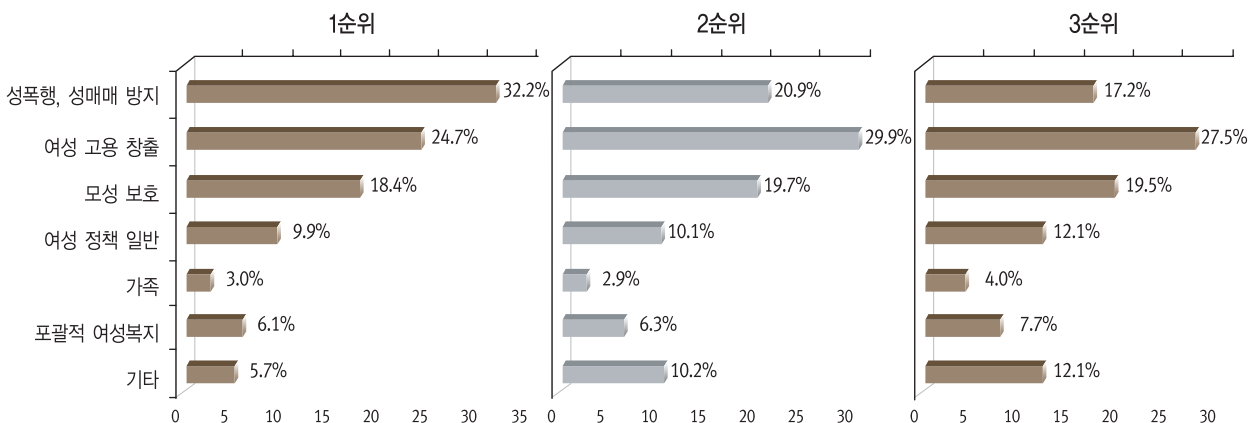
■ 국민들, 2010년 가장 필요한 여성정책으로 '여성고용창출'과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 2010년 여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

1·2·3위

-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1·2·3순위의 형태로 조사하였음 (〈그림〉 참조).
- 조사된 의견을 주저별로 요약화하여 2010년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적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을 살펴해보았음. 분석 조사결과 1순위에서는 '성폭력·성매매 방지'가, 2순위와 3순위에서는 '여성고용창출'이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음.
 - 1순위에서는 '성폭력·성매매 방지'가 32.2%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그 다음 주력사항으로는 '여성고용창출' (24.7%), '모성보호' (18.4%)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2순위에서는 '여성고용창출' (29.9%)이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으며, 그 뒤를 이어 '성폭력·성매매 방지' (20.9%)와 '모성보호' (19.7%)가 높게 나타났음
 - 3순위에서도 역시 '여성고용창출' (27.5%)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모성보호' (19.5%)가 '성폭력·성매매' (17.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010년 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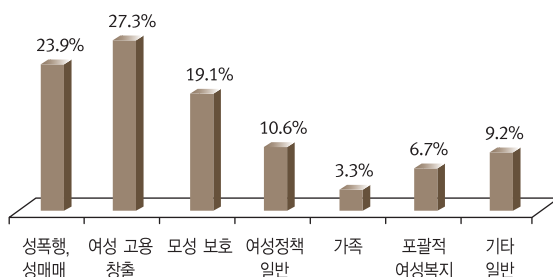
- 한편, 여성정책 일반, 포괄적 여성복지, 기타는 1순위에서 3순위로 갈수록 응답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조사 결과를 볼 때, 우리 국민들이 2010년도에 가장 긴급하게 생각하는 여성정책 분야로는 '성폭력·성매매'이지만, 전반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여성 고용 창출'인 것을 알 수 있음

☞ 중복 응답 분석결과, '여성 고용 창출' 가장 높아

- 국민들이 생각하는 2010년에 필요한 여성정책의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순위에 상관없이 조사된 전체 응답을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그림3, <표3> 참조).
- 복수응답 분석 결과, 2010년에 주력해야 할 여성정책 1위는 '여성고용창출'(27.3%)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9%가 '여성고용창출'을 2010년에 주력해야 할 여성정책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한 해 동안 여성 취업자 비율이 크게 줄어든 점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많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상태가 불안해진 점 등 지난 한 해 동안 나타난 여성 고용 문제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그 다음 순위로는 '성폭행·성매매'(23.9%) 방치 분야로 나타남.
 - '성폭행·성매매'는 앞서 분석한 1순위 응답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3순위까지의 전체 응답 분석 결과에서는 '여성 고용 창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기준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9%가 '성폭행·성매매'를 사회적으로 주력해야 할 여성문제라고 응답하였음.
- 그 뒤를 이어 2010년에 주력해야 할 여성정책 사항은 '모성보호'(19.1%)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앞서 분석된 순위별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50.5%가 모성보호 문제의 필요성을 거론하였음

<그림3> 2010년 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사항



주) 복수응답, 응답수 기준

<표3> 2010년 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사항

단위: 명(%)

정책분야	사례수 (전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기준	응답자 기준
성폭행, 성매매	623	(23.9)	(62.9)
여성 고용 창출	712	(27.3)	(71.9)
모성 보호	500	(19.1)	(50.5)
여성 정책 일반	278	(10.6)	(28.1)
가족	85	(3.3)	(8.6)
포괄적 여성복지	174	(6.7)	(17.6)
기타	239	(9.2)	(24.1)
합계	2,611	(100.0)	(263.7)

주) 복수응답

☞ 소분류 응답 분석 결과,

가장 주력해야 할 사항으로 '남녀고용평등' 꼽혀

- 응답 내용과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소분류 내용별로 분석하였음 <표4>는 각 대분류 내에서도 상위 10개 항목의 소분류 응답내용을 기재한 것임.
- 전체 소분류 응답 중에서 '남녀 고용 평등'의 비율이 13.4%로 가장 높았음. 응답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35.5%가 2010년에도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고용 상에서의 양성 평등은 우리 사회의 주력 사항이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고용상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성폭행 근절 및 예방'이었음. 전체 응답의 8.7%, 전체 응답자의 23%가 우리 사회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성폭행 근절 및 예방'을 꼽았음.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조두순 사건' 등의 사건들을 통해 성폭행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자녀의 '양육지원'(7.1%)에 대한 요청 또한 낮지 않음. 상당수의 국민들이 양육지원금, 이와 관련된 세제혜택,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양육 지원에 대한 노력이 2010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 외에도 여성을 위한 '포괄적 사회보장', '여성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자녀교육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기타 의견들도 제기되었음.

〈표4〉 2010년 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사항(소분류)

대분류	사회적 주력 사항	사례수 (전체 응답수)	백분율	
	소분류		응답수 기준	응답자 기준
성폭행, 성매매	성폭행 근절, 예방	228	8.7%	23.0%
	여성 안전 및 치안 강화	154	5.9%	15.6%
여성 고용 창출	성 상품화 근절	89	3.4%	9.0%
	남녀 고용 평등	351	13.4%	35.5%
	여성 고용 창출	185	7.1%	18.7%
모성 보호	양육지원	199	7.6%	20.1%
	출산 장려금 확대	129	4.9%	13.0%
	출산 및 육아휴직 후 고용 보장	61	2.3%	6.2%
여성 정책 일반	여성 지위 향상	96	3.7%	9.7%
	여성 정책 향상	45	1.7%	4.5%
	여성의 자원 입대	39	1.5%	3.9%
가족	미혼모 지원	24	.9%	2.4%
	아동복지 개선	22	.8%	2.2%
	모자 가정 지원	19	.7%	1.9%
포괄적 여성복지	사회적 보장	93	3.6%	9.4%
	여성 질환 의료 혜택 강화	24	.9%	2.4%
기타	여성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57	2.2%	5.8%
	자녀 교육 문제	54	2.1%	5.5%
	여성 전용 공간 확대	31	1.2%	3.1%
합계		2611	100.0%	263.7%

☞ 여성들은 '성폭력·성매매',

남성들은 '여성 고용 창출' 더 중요하게 생각해

- 이상의 응답 결과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들은 '성폭력·성매매' (27.1%)가, 남성들은 '여성 고용 창출' (26.3%)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5〉 참조).
- 여성들은 '여성고용창출' 보다 '성매매·성폭행'을 더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음
 - '성폭력·성매매'에 대한 남성(20.4%)과 여성(27.1%)의 응답 격차는 약 7%p 정도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폭력이나 성매매와 같은 시안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음. 이는 조두순 사건이나 은지 사건 등 2009년도에 일어났던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한 다양한 양육지원 및 출산 장려 혜택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여성들, 자녀수가 적고 학력이 높을수록 '모성보호' 필요성 크게 인식해

- 여성들의 응답경향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여성들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자녀수, 향후출산계획 등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표6〉 참조).
-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수가 적은 여성일수록 '모성보호'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음
 - 2010년에 주력해야 할 여성정책으로 '모성보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졸이상의 여성들(23.4%)이 고졸이하의 여성들(13.7%) 보다 약 10%p 높아 고학

〈표5〉 2010년 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사항(성별, 연령별)

단위: 명(%)

	성별		연령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성폭행, 성매매	256 (20.4)	367 (27.1)	249 (28.3)	201 (22.3)	173 (20.9)	623
여성 고용 창출	356 (28.3)	356 (26.3)	216 (24.5)	249 (27.6)	247 (29.9)	712
모성 보호	233 (18.6)	267 (19.7)	151 (17.1)	202 (22.4)	147 (17.8)	500
여성 정책 일반	167 (13.3)	111 (8.2)	112 (12.7)	83 (9.2)	83 (10.0)	278
가족	35 (2.8)	50 (3.7)	17 (1.9)	33 (3.7)	35 (4.2)	85
포괄적 여성복지	96 (7.6)	78 (5.8)	52 (5.9)	76 (8.4)	46 (5.6)	174
기타	113 (9.0)	126 (9.3)	84 (9.5)	59 (6.5)	96 (11.6)	239
합계	1,256	1,355	881	903	827	2,611

주) 복수응답, 응답수 기준

〈표6〉 여성들의 2010년 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사항

단위: 명(%)

	교육수준			자녀수				향후출산계획		전체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0명	1명	2명	3명이상	있음	없음	
성폭행, 성매매	141 (29.2)	62 (25.3)	164 (26.2)	26 (25.5)	48 (20.9)	80 (25.1)	21 (28.4)	191 (28.9)	176 (25.4)	367
여성 고용 창출	131 (27.1)	69 (28.2)	156 (24.9)	24 (23.5)	65 (28.3)	84 (26.3)	24 (32.4)	167 (25.3)	189 (27.2)	356
모성 보호	66 (13.7)	54 (22.0)	147 (23.4)	28 (27.5)	60 (26.1)	52 (16.3)	8 (10.8)	144 (21.8)	123 (17.7)	267
여성 정책 일반	54 (11.2)	11 (4.5)	46 (7.3)	2 (2.0)	23 (10.0)	25 (7.8)	7 (9.5)	53 (8.0)	58 (8.4)	111
가족	16 (3.3)	8 (3.3)	26 (4.1)	4 (3.9)	10 (4.3)	16 (5.0)	3 (4.1)	17 (2.6)	33 (4.8)	50
포괄적 여성복지	23 (4.8)	19 (7.8)	36 (5.7)	13 (12.7)	8 (3.5)	20 (6.3)	1 (1.4)	42 (6.4)	36 (5.2)	78
기타	52 (10.8)	22 (9.0)	52 (8.3)	5 (4.9)	16 (7.0)	42 (13.2)	10 (13.5)	47 (7.1)	79 (11.4)	126
합계	483	245	627	102	230	319	74	661	694	1,355

주) 복수응답, 응답수 기준

력 집단 여성들이 모성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녀가 적을수록 '모성보호'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였는데,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여성들은 10.8%인 반면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여성들은 27.5%로 약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음.
- 향후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21.8%)보다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17.7%)들이 모성보호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성보호 혜택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자녀가 있는 여성, 그 중에서도 자녀가 많은 여성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여성보다도 자녀가 없는 여성 혹은 향후 자녀를 출산할 여성들이 모성보호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역설적으로 이는 모성보호 지원책을 혁신적으로 강화할 경우, 현재 출산을 미루고 있는 여성들의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성폭행·성매매'의 응답률이 더

높아져서 자녀를 가진 여성들이 아동성폭력 문제 등으로 인해 이 부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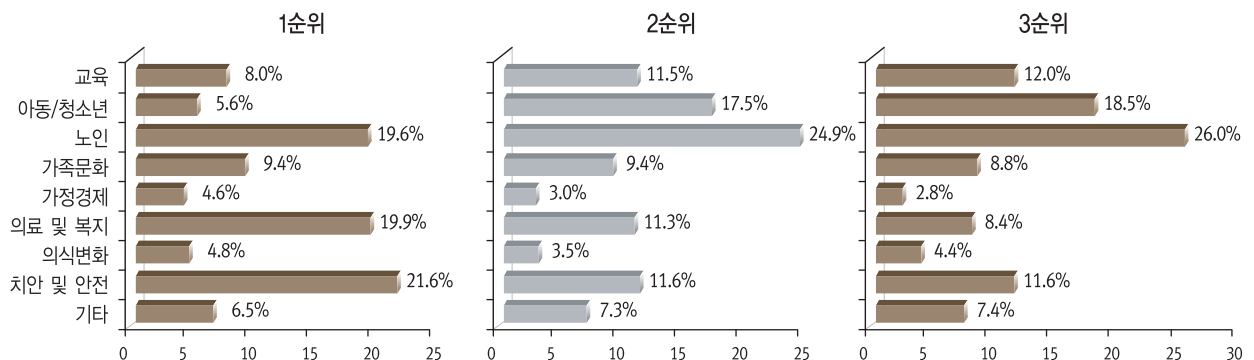
2010년 행복한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적 노력은?

■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가장 필요해

☞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 1·2·3순위

- 여성에 이어 2010년 아동·청소년, 노인 등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 1·2·3순위의 형태로 조사하였음 〈그림4〉는 응답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화하여 정리한 것임.

〈그림4〉 2010년 행복한 가족을 위한 주력 사항 1·2·3순위



-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치안 및 안전' 문제와 '노인' 관련 정책이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1순위에서는 치안 및 안전 분야가 2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의료 및 복지'가 19.9%, 비슷한 수준으로 '노인'이 19.6%로 나타났음
 - 2순위에서는 '노인'이 24.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이 17.5%로 나타났음. 1순위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던 '치안 및 안전'과 '의료 및 복지'는 2순위에서는 11%로 떨어졌음.
 - 3순위 역시 '노인'이 2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이 18.5%로 높게 나타나 2순위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전체적으로 1순위와 2·3순위의 응답 경향에 차이가 있었음. '노인' 문제는 1순위에서 3순위로 갈수록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진 반면, 치안 및 안전과 의료 및 복지는 1순위에서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순위와 3순위로 갈수록 비율이 상당히 떨어짐.

☐ 중복응답 결과, 2010년 행복한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력은 '노인 관련'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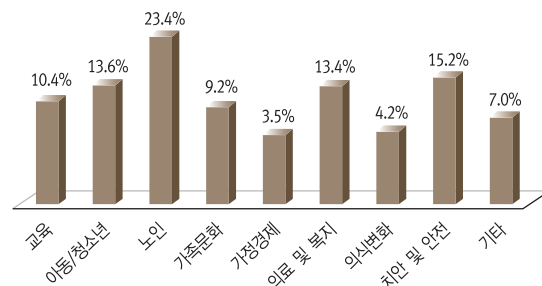
- 행복한 가족을 위해 2010년에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을 알아보기로 응답 내용을 순위에 상관없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표7, <그림5> 참조)
- 중복응답 분석 결과, 2010년에 가장 주력해야 할 가족 정책은 '노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은 전체 응답 중에 23.4%를 차지했음. 응답자 중에 57.6%가 2010년에는 노인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함을 알 수 있음

<표7>2010년 행복한 가족을 위한 주력 사항

정책분야	사례수	비율	
		응답수 기준	응답자 기준
교육	249	(10.4)	(25.7)
아동/청소년	325	(13.6)	(33.6)
노인	558	(23.4)	(57.6)
가족 문화	220	(9.2)	(22.7)
경제	84	(3.5)	(8.7)
의료 및 복지	320	(13.4)	(33.1)
의식변화	101	(4.2)	(10.4)
치안 및 안전	362	(15.2)	(37.4)
기타	168	(7.0)	(17.4)
합계	2,387	(100.0)	(246.6)

- 순위 조사에서 1순위로 나타났던 '치안 및 안전'은 전체 응답 중에 15.2%, 응답자 기준으로 3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노인'에 이어 두 번째 높은 비율이나, 그 격차는 8.2%p 정도 차이가 있음.
- 한편, 2순위와 3순위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던 아동·청소년과 '의료 및 복지'는 중복응답 분석 결과 각각 13.6%(응답자 기준 33.6%)와 13.4%(응답자 기준 33.1%)로 비슷하게 나타났음
- 그 외에도 사교육 등과 같은 '교육' 문제(10.4%)와, 문화 생활을 통해 세대를 통합하는 '가족문화' 창출(9.2%)이 주력해야 할 가족 정책으로 선정됨.

<그림5> 2010년 행복한 가족을 위한 주력 사항



주) 복수응답, 응답수 기준

☐ 세부 응답 분석 결과, 가장 주력해야 할 사항으로 '복지 예산 확충' 및 '노인 일자리 창출' 꼽혀

- 구체적인 응답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 내용을 소분류 내용별로 분석하였음 (표8)는 각 대분류 내에서도 응답률 1% 이상의 내용만을 표시한 것임
- 세부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분류 응답 중에서 '복지 예산 확충'이 7.9%로 가장 높았음. 응답자 기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19.4%가 가족 관련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로 전체 응답의 7.0%, 전체 응답자의 17.4%를 차지하였음. 앞서 대분류 분석에서도 노인 부분은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그 중에서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기대수명은 길어지는데 비해 실질적인 정년은 점차 짧아지고 있어 중년 후기에 들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도 노년기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 (5.8%),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준비가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독거 노인 문제(3.2%), 노인 요양시설 확충(2.8%) 등이 노인 문제 안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거론되었음
-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은 '아동성폭력 방지'(6.4%)임. 전체 응답자의 15.8%가 이 문제를 2010년도 주력해야 할 가족 정책 중 하나로 지목하였음
 - '치안 및 안전' 분야 내에서 '아동성폭력 방지'(6.4%)와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 강화'(5.8%)가 높은 비율을 보여 국민들은 일반 범죄나 폭력보다도 성폭력, 그 중에서도 아동성폭력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아마도 이는 2009년도에 아동성폭력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폭력 방지'(2.6%)와 '청소년 문화 시설 확충'(2.4%)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그 밖에도 청소년 쉼터나 상담센터의 확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등도 제시되었음.
- 가족문화에 대한 의견으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3.7%), '가족 공동 문화 개발'(2.5%) 등 가족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비록 소수이지만 기타 답변들로 가족적인 TV 프로그램 제작, 가족 공동 문화 공간 마련 등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저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도 다양한 기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표8>에 제시된 몇 가지 이외에도 공유일 확대, 정시 퇴근, 휴가 제도 개선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보장에 대한 요구도 있었으며, 안전한 먹거리 보장 또한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었음

<표8> 2010년 행복한 가족을 위한 사회적 노력 사항(소분류)

대분류	사회적 주력 사항	사례수	백분율	
	소분류		응답수 기준	응답자 기준
교육	교육제도 정상화	67	2.8%	6.9%
	인성교육 확대	52	2.2%	5.4%
	교육환경 개선	25	1.0%	2.6%
	무료 급식 확대	24	1.0%	2.5%
아동/청소년	청소년 폭력 방지	62	2.6%	6.4%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58	2.4%	6.0%
	청소년 상담센터	40	1.7%	4.1%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39	1.6%	4.0%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38	1.6%	3.9%
	청소년 지원	27	1.1%	2.8%
노인 관련	노인 일자리 창출	168	7.0%	17.4%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	139	5.8%	14.4%
	독거노인 관심	76	3.2%	7.9%
	노인 요양시설 확충	66	2.8%	6.8%
	노인 폭행 금지	35	1.5%	3.6%
	노인 의료비 지원	24	1.0%	2.5%
가족 문화	가족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88	3.7%	9.1%
	가족 공동 문화 개발	60	2.5%	6.2%
	가족 공동 문화 공간 마련	33	1.4%	3.4%
경제	경제안정	36	1.5%	3.7%
	빈부격차 감소	26	1.1%	2.7%
의료 및 복지	복지 예산 확충	188	7.9%	19.4%
	소외계층 지원	90	3.8%	9.3%
가치	노인공경 문화 확산	64	2.7%	6.6%
	남성우월사상 근절	18	.8%	1.9%
치안 및 안전	아동성폭력 방지	153	6.4%	15.8%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 강화	138	5.8%	14.3%
	안전한 사회	39	1.6%	4.0%
기타	출산 및 육아 지원	47	2.0%	4.9%
	자연친화적 공간	37	1.6%	3.8%
	친목도모 문화	24	1.0%	2.5%
	봉사활동	24	1.0%	2.5%
합계		2,387	100.0%	246.6%